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0
NOV 06 2019

발간년월 2019년 11월 06일 (통권 제11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극동개발 위한 국가 위원회 개최
- 카자흐스탄, 몽골과 무역관계 활성화 기대
- 조지아-터키, 교역량 증대 및 에너지·철도 분야 총망라한 밀도 있는 경제협력 논의
- 세르비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주요 통계

-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주요 동향



극동개발 위한 국가 위원회 개최

■ 올해 10월 말 극동지역 투자프로젝트 국가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투자정책, 극동지역 경제발전지역 등을 논의함

- 본 위원회에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이하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 및 극동연방관구 연방주체 대표 등이 참석함
- 현재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에 약 258개의 기업이 약 6,200억 루블을 투자했으며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프로젝트는 총 1,984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약 2,000건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투자금액은 약 3조 9,000억루블, 창출될 일자리 수는 약 15만 5,000개임

■ 본 위원회에서 유즈나야 야쿠치야 선도개발의 콜마르 프로젝트를 검토함

- 콜마르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금액은 약 228억루블에서 약 441억루블로 증가될 것임
- 현재 프로젝트 단계의 연간 석탄 생산량이 약 270만톤에서 약 600만톤으로 증가함에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봄

■ 본 위원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극동연방관구 경제성장지역의 사회개발계획과 관련된 프로젝트 조정 및 변경 등을 논의함

- 현재 콤소몰스크-나-아무레와 캄차트카 변강의 암클리닉 건설 등과 같은 시설 건설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시작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는 프로젝트 계획 일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과 관련 있으며 예산을 증가시켜 프로젝트를 수정하고자 함

■ 2021년까지 약 957억루블의 연방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급됨

- 극동에는 약 58개의 경제성장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극동지역의 약 8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사회개발계획에 따라 병원, 학교, 유치원, 운동장, 기술학교 및 병원 등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 총 50건이 진행 중임

■ 부랴티야 공화국, 자바이칼 변경, 프리모리에 변경,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주, 사할린주, 유대인 자치구에서 개발계획 변경서를 제출함

- 부랴티야 공화국의 경우 사회개발계획 중 9건의 프로젝트에서 약 4,760만 루블을 절약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계획 6건을 제안함
- 유대인 자치구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총 4대의 버스를 구매하고 지역 병원 의료장비 구매를 위해 추가자금을 조달하기로 함

김은미 현지 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카자흐스탄, 몽골과 무역관계 활성화 기대

■ 카자흐스탄은 몽골과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대감을 공유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지난 달 카자흐스탄의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총리는 몽골의 우흐나긴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총리를 공식 초청해 회담을 가졌음
-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경제, 교통, 농업, 광업,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와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상호협력 분야에서 협력개발을 논의함
- 아스카르 마민 총리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의 관계가 과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잘 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효율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카자흐스탄과 몽골 간 무역거래량이 약 8,000만 달러를 돌파하며, 향후 양국은 '2021~2024년 무역 및 경제 협력 개발 로드맵' 전략을 이행할 전망이다

- 아스카르 마민 총리는 양국 무역 관계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역량의 증대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희망한다고 역설함
- 특히 농업 부문과 운송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이른 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 교류 확대를 꾀하는 의도를 나타냈음
- 아울러 몽골 영토 내 카자흐 디아스포라는 약 12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서부 바양올기(Bayan-Olgii) 주에는 약 9만 명이 밀집해있는데 카자흐스탄 당국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보임

■ 양국은 무역관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문화적 측면의 협력도 강조했으며 다양한 협약을 논의함

- 양국은 테러 방지를 위한 안보 협약, 교육 부문에서는 학술 용어와 학위기, 행정용어에 대한 통일을 합의함
- 또한 농업과 축산 부문에서는 품질 관리위원회의 검역 활동을 장려하고, 첨단화된 곡물 재배 기술 정보 공유와 생산기술 센터 건설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함
- 각국의 수도인 누르술탄 시와 울란바토르 시 간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예술과 문화, 산업, 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전망이다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24.kz/> (2019.11.01. 검색)
- b) <https://www.montsame.mn/> (2019.11.02. 검색)
- c) <https://www.inform.kz/> (2019.11.03. 검색)

조지아-터키, 교역량 증대 및 에너지·철도 분야 총망라한 밀도 있는 경제협력 논의

■ 10월 31일 기오르기 가하리아(Giorgi Gakharia) 조지아 총리는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과 회동했음

- 에르도안 대통령과 가하리아 총리는 향후 터키-조지아 간 무역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으며, 이와 더불어 터키-조지아-아제르바이잔을 묶는 물류 및 에너지 공급망 분야 협력 지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 현재 터키는 조지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교역액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056억 원)를 기록했음. 이는 2018년 대비 2.8%가 상승한 수치이며, 조지아 전체 교역량에서 1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상호 협력 진흥을 위해 이미 2016년에 행정부 간 협력체인 터키-조지아 전략 파트너십의회(Turkey-Georgia Strategic Partnership Council)를 설립한 바 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앙카라(Ankara)에서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 언급했음
- 경제분야 협력 점검 및 확대방안 논의 이외에도, 양국은 정치 및 흑해지역 안보 협력방안 또한 논의했음.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하리아 총리에게 “터키는 조지아의 주권 및 영토 통합성(territorial integrity)을 거듭 지지한다”고 언급했음. 이는 러시아-조지아 관계에서 민감한 문제인 압하스(Abkhazia)와 남오세티아(South Ossetia) 이슈와 연관이 있음

그림 1.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가하리아 조지아 총리 회담



■ 한편 가하리아 총리의 터키 방문이 지역 정세에 미칠 영향과 평가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측과 터키 측의 해석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학계는 대체적으로 조지아 총리의 터키 방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음. 자우르 메메도프(Zaur Məmmədov)는 스푸트니크 아제르바이잔(Sputnik Azerbaijan)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 정부는 현재 경제 발전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도움이 절실함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현재 터키는 EU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창이며, 조지아도 대 아제르바이잔 농산물 수출이 33% 상승하는 등 3국의 공동 이익 일치와 복리 증진이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이는 에너지 수출국이자 유라시아 전체의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아제르바이잔의 국익 신장에 조지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터키 측 학자인 엔진 외제르(Engin Özer)는 가시적인 형태로서의 터키-조지아-아제르바이잔 협력체제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음.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같은 투르크 민족의 한 갈래로서 “형제”로서 인지하고 있지만, 조지아는 단지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등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게다가 가하리아 총리의 방문에는 아나클리아(Anaklia) 신항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의 사업 탈퇴 시 대체자로서 터키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있었으나,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 또한 있음
- 즉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지아에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터키의 대러 관계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sputnik-georgia.ru/economy/20191101/246915132/Gruziya-ukreplyaet-partnerstvo-s-Turtsiye-o-chem-dogovorilsya-Gakhariya-v-Ankare.html> (2019.11.5. 검색)
- b) <https://sputnik-georgia.ru/caucasus/20191104/246922953/Chto-prineset-regionu-vizit-Gakhariya-v-Ankaru---vzglyad-iz-Baku.html> (2019.11.5. 검색)
- c) <https://www.agenda.ge/en/news/2019/2943> (2019.11.5. 검색)

세르비아,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10월 25일 아나 브루나비치 세르비아 총리는 EAEU의 집행 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의회에 참석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

- EAEU는 러시아와 구소련 5개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2015년 탄생한 자유무역경제 공동체임
- EAEU는 최근 5년간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아세안, 인도, 이란, 한국 등 여러 국가와의 협정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2017년 5월 자유무역에 관한 협상에 착수했고 2019년 10월 25일 협정이 체결됨
- 동 협정을 통해 세르비아는 2,000톤의 담배, 90,000리터의 와인, 400톤의 낙농 제품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됨
- 러시아와의 교역액은 세르비아 전체 대외 교역액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세르비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유럽연합은 세르비아-EA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

- 세르비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EU 공식 가입 후보국으로 등록되어 있음
-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국이며 따라서 세르비아-EAEU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그 자체로 제재 위반이라 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을 포함해 슬로베니아 등의 발칸 국가도 세르비아의 결정에 반발
- 로이터 통신 등 서방 언론에서는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EAEU 가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칸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옴
- 실제로 러시아와 세르비아는 ‘슬라브의 방패 2019(Slavic Shield 2019)’라는 군사 훈련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그림 1. 10월 25일 EAEU 협의회에 참석한 세르비아 브루나비치 총리



이호건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leehkun2010@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tass.com/economy/1085403Y> (2019년 10월 28일 검색)
- b) <https://balkaninsight.com/2019/10/25/serbia-signs-trade-deal-with-russias-eurasian-union/> (2019년 10월 28일 검색)
- c) <https://seenews.com/news/serbia-signs-free-trade-deal-with-eaeu-673997>(2019년 10월 28일 검색)



표 1.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27 (-1.3%)	6.67 (+0.2%)	17.94	-0.8%
북극해	2.96 (-1.1%)	6.11 (-4.7%)	9.09	-3.5%
발트해	9.42 (-0.2%)	11.19 (-1.3%)	20.61	-0.8%
아조프-흑해	9.91 (+1.2%)	14.7 (+1.0%)	124.6	+0.9%
카스피해	0.23 (+0.2%)	0.41 (-102.4%)	0.64	-0.3%
합계	33.78 (-0.2%)	39.08 (-0.6%)	72.87	-0.5%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3,031.1	66,762.5	328,401.1	64,743.2	4,629.9	2,019.3
광물 제품	1,685,237.5	94,904.4	1,650,965.7	13,786.7	34,271.8	81,117.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574,993.7	12,702.4	1,574,930.8	12,695.5	62.9	6.9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287.5	69,988.1	3,561.7	69,107.8	725.8	880.3
가족원료, 모피 제품	18.7	2,563.4	10.1	2,544.3	8.7	19.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3,105.5	8,323.4	82,211.0	8,239.7	894.5	83.7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531.7	42,198.2	371.8	41,276.6	159.9	921.5
금속 및 금속 제품	39,630.0	72,877.2	39,514.2	68,755.9	115.8	4,121.2
기계류	138,901.6	402,907.0	137,767.2	401,049.5	1,134.5	1,857.5
기타	251,909.4	64,400.4	196,735.2	64,094.6	55,174.1	305.8
합계	2,536,652.9	824,924.3	2,439,537.9	733,598.2	97,115.0	91,326.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3	11,6	0	0	-	-	-	-	3	11.6	0	0
냉동어	113,120	1,424,705.9	275	38,321.5	319	466.3	-	-	113,438	1,425,172.2	275	38,321.5
연어류	23,274	185,700.4	-	-	0	0	-	-	23,274	185,732	-	-
넙치	737	17,760.0	-	-	-	-	-	-	737	17,760.0	-	-
가자미	741	11,984.5	-	-	-	-	-	-	741	11,984.5	-	-
가자미류	1,841	25,544.2	-	-	-	-	-	-	1,841	25,544.2	-	-
청어	8,721	55,873.8	-	-	299	374.7	-	-	9,020	56,248.5	-	-
대구	4,353	139,706.5	-	-	-	-	-	-	4,353	139,706.5	-	-
명태	60,583	737,243.3	-	-	-	-	-	-	60,583	737,246.3	-	-
농어	17	1,399.2	-	-	-	-	-	-	17	1,399.2	-	-
간, 곤이 (어란)	1,599	184,918.6	-	-	-	-	-	-	1,599	184,918.6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50	10,270.4	-	-	-	-	-	-	650	10,270.4	-	-
생선필렛, 어육	2,727	138,207.6	82	2,339.6	-	-	-	-	2,727	138,207.6	82	2,339.6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2	1,179.4	138	4,123.4	-	-	-	-	82	1,179.4	138	4,123.4

갑각류	5,027	659,148.5	73	1,570.2	-	-	-	-	5,027	659,148.5	73	1,570.2
계류	4,144	596,737.8	-	-	-	-	-	-	4,144	596,737.8	-	-
조개류	3,163	43,582.6	-	-	-	-	-	-	3,163	43,582.6	-	-
가리비류	322	9,087.2	-	-	-	-	-	-	322	9,087.2	-	-
오징어류, 문어류	2,283	15,056.9	56	1,864.4	-	-	-	-	2,283	15,056.9	56	1,864.4
수산무척추동물	5,143	16,972.0	-	-	0	0	-	-	5,143	16,972.0	-	-
해삼류	428	21,543.6	-	-	0	0	-	-	428	21,544.0	-	-
성게류	189	4,182.7	-	-	-	-	-	-	189	4,213.1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3월, 1~6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